

성병

관리,

이렇게

하자



# 사랑과 성병, 떼어 놓을 수 없나?

〈下〉

## 5. 성병관리의 문제점

첫째: 완전히 예방되는 적극적인 예방수단이 없다.

둘째: 은밀한 접촉으로 전염되므로 보균자의 격리와 통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셋째: 섹스는 곧 프라이버시이므로 전염원 추적이 어렵다.

넷째: 아직도 성병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통념 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곤란하다.

다섯째: 임질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으므로(약 80%) 본인이 성병에 걸렸음을 인식하기 이전에 타인에게 옮겨줄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약국에서 쉽게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어 임의로 복용하므로 균이 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숨은 경우가 많고 치료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 6. 성병의 종류별 실상

현재 성병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성병성임과 육아중, 서해육아중 등 10여 가지이나 여기서는 그 위해가 심하고 감염율이 높은 매독과 임질에 관하여만 기술코저 한다.

#### 가. 매독

(1) 원인균 : Treponema Pallidum  
(T. P.)

(2) 잠복기 : 10~90일, 보통은 20일

(3) 전염원 : 환자의 정액, 타액, 분비물 등

#### (4) 감염경로

##### ● 후천성감염

— 직접감염 : 성교, 키스, 수유, 수혈

— 간접감염 : 식기, 면도, 빗, 침구

(드문편)

##### ● 선천성감염

— 임신중감염 : 임신 5개월이후 체내 태반을 통해 감염.

#### (5) 증상

성관계후 약 3주정도 매독균이 침투한 자리에 흡사 모기에 물린 자국과 같은 반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껍질이 벗겨지며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감염자의 약 10% 정도)이고 거의 대다수는 전혀 흔적을 보이지 않거나 설혹 있다 하여도 너무나 경미하여 그냥 지나치기 일수다. 그후 3~6개월쯤 지난 뒤에야 장미색 발진, 즉 매독진이 출현하나 각각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게 되며 매독은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게된다.

2~5년이 지난 만기 매독은 피부, 내장, 뼈, 점막표면에 파괴성 전염력이 없

는 병소를 형성한다. 잠복기는 사람에 따라 일생가는 사람도 있고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 (6) 후유증

—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전신마비, 정신이상, 협심증, 뇌출혈, 안장코 등의 증세를 일으켜 수명단축 노동을 저하를 초래한다.

— 선천매독

대부분 유산되지만 분만되었다 하여도 곧 사망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 (7) 치료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나. 임질

##### (1) 원인균

임균(Gonococcus(GC)), Neisseria Gonorrhoeae)

(2) 잠복기 : 보통 3~9일

##### (3) 전염원

환자의 점막에서 나오는 삼출물기 감염 원인이다.

##### (4) 전파방법

성행위에서 대부분 전파된다.

신생아는 출생시 눈에 전염되는 수가 있고 여자는 목욕탕, 하의, 직장 온도계의 비위생적인 사용으로 간혹 전염된다.

##### (5) 증상

가) 남자 :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아프며 자주 변소에 가게되고 처음에는 점액같은 요도 분비물이 나오지만

끈 고름이 나오고(Urethritis) 치료하지 않으면 6월 이내에 치유되거나 또는 만성보균자가 되지만 요도는 좁아지고 아침이면 점액량 분비물이 수개월간 계속 해서 나온다.

나) 여자: 잠복기는 2~8 일이고, 처음에는 소변은 잘나오지 않으면서 자주 요의를 느낀다. 그러나 여자의 80%가 이러한 요도염 증상이 경하거나 아주 없다.

#### (6) 후유증

● 불임증: 남자는 정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여자는 나팔관을 해치게 되어 남녀 다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게된다.

● 관절염: 임질이 생긴지 1~3 주 후에 갑자기 또는 천천히 관절염이 생긴다. 80%는 허리 관절이 침범되며 무릎 발목들의 관절에 특히 많이 생기지만 어느 관절에도 생길 수 있다.

● 안염: 관절염이 생긴 환자의 10~20%에서는 화농성이 아닌 무균성 결막염이 생긴다. 성인에서는 임균으로 생기는 화농성 전증은 드물지만 신생아는 생후 72시간 이내에 눈의 주위가 붓고 화농성 결막염이 생겨 각막에 궤양을 만든다.

● 임신부가 임질을 앓고 있을 때에는 임균이 태아의 눈에 들어가 눈을 멀게 한다.

#### (7) 치료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제공〉

#### 〈p. 36에서 계속〉

는 것이었다. 요는 검사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자는 부산으로 되돌아 오면서 혼자 속으로 뇌까려본다. 역시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검진 사업이라면 도시보다 농촌에, 그것도 순박한 농어촌 주민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 ■ 유모어 극장

##### ■ 베스트 셀러

여비서: 어머니, 사장님두…….

여태 그 베스트 셀러를 안 읽으셨어요? 나온지 1년이나 됐는데…

사장: 이봐, 혹시 단테의 신곡을 읽었나?

여비서: 아니요?

사장: 허허 그책은 나온지가 6 백년이나 지났는데…….

##### ■ 구경거리

교수대로 끌려가는 살인범, 자기를 앞질러 달려가는 구경꾼을 향해 거만하게 이죽거렸다.

「젠장, 경치게도 성미 급하지 않으면 서둘러봐도 소용없어. 내가 교수대에 올라가야 구경하지.」